제345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8월18일(목)

장 소 대관령면사무소회의실

의사일정

1.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
   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상정된 안건

1.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 ····· 1
   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14시39분 개의)

○위원장 황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 등 요즘 하계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곳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에서 개의되는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기관인 강원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중국에서 열리는 제21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한 후 조금 전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중이므로 회의 이후에 현장시찰에 합류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개최 시장·군수님들은 또 다른 사유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요. 대신에 강원도에서는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과 강릉시의 김철래 부시장님, 평창군의 어승담 부군수님, 정선군의 윤성보 부군수가 대신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3개 시군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잠깐 인사 나눴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

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14시42분)

○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안녕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곳 평창까지 직접 방문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고 있고 하계올림픽이 끝나면 전 세계가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이곳 평창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평창 현지에서 회의 개최가 된 것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올림픽 개최까지 정확히 540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위원회는 문체부 등 정부, 강원도 및 개최도시와 함께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4차 대회재정계획안 수립, 그리고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순입니다.

1쪽의 제4차 대회재정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재정계획 수립 경위입니다.

2011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구성 이후에 IOC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간 세 차례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4차 재정계획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감사원은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재정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최소 2244억 원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부족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쪽, 제4차 대회재정계획안입니다.

금번 마련된 제4차 대회재정계획안은 사업주체의 변경, 당초 예측치 못한 신규소요 발생, 일부 사업 내용의 불가피한 확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서 비드파일 대비 약 6000억 수준 증가한 규모로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대회재정계획상에 수입은 2조 4000억 원, 지출은 2조 8000억 원 규모로 수입은 국내 후원기여금, 해외 톱 스폰서 수입, 입장권 수입, IOC 지원금 등을 통해서 조달 예정이며 지출은 시설설치,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및 대회 운영 인력 인건비, 숙박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제4차 대회재정계획안은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IOC에 제출하고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조직위원회 운영비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수입은 왼쪽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스폰서 35.4%, 글로벌 스폰서 9.5% 등 스폰서 수입금액이 약 45%를 차지하며 IOC 지원금 19%, 입장권 수입 7.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건설 및 정보통신사업 33.5%, 기관운영 및 자원봉사 12.4%, 세금 및 로열티 1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재정 달성 방안입니다.

제4차 대회재정계획상 자체 수입을 초과하는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자구 노력과 정부 각 부처의 협조 및 공공기관의 후원 확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균형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위 차원에서 최대한 자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의 후원기여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한편 IOC와 교섭 강화를 통해서 수입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 다양한 재정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물자 등은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1억 원 이상의 지출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10%~20% 삭감 운영하고 국내여비는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컨설턴트 운영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지출 절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후원 확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직간접으로 연관되거나 재무 여건이 양호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림픽에 대한 후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거나 정부 각 부처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물자·장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각 부처 예산에 주요 사업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5쪽의 공공기관 후원 참여 요청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총 세 건입니다.

첫째, 대회 운영 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입니다.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 신원 확인은 올림픽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으로서 과거 모든 대회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IOC 역시 대회 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대회 운영 관계자의 테러·안전 관련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조회 대상의 포괄성 및 인권·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서 조회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회 대상자 및 조회 대상 범죄의 대폭 축소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면제입니다.

정부는 올림픽대회 유치 당시에 선수단, IOC, 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 사용 관련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한 전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미디어 등의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셋째, 레이트카드 차량의 유상 재임대 및 알선 허용입니다.

대회 참가자의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직위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 외에 별도의 차량을 필요로 하는 대회 참가자에게 렌트차량을 유상으로 재임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협약 미가입 국가의 대회 참가자에 대한 운전자 알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트차량의 유상 재임대 및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3건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IOC, 법률 소관 부처인 문체부와도 현재 협의가 일부는 완료되었고 또는 일부는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안건 보고와는 별개로 옆에 자료에 준비한 리우올림픽 평창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리우올림픽이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 코파카바나 해변에 평창올림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평창체험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8월 6일 개원식 이후에 어제까지 불과 열흘 남짓 만에 IOC의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서 약 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연일 관람객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언론은 물론 미국 NBC 등 전 세계 60여 개가 넘는 언론사가 방문해서 평창과 대한민국을 취재하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등 평창홍보관이 평창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직위원회는 88서울올림픽에 이어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 올림픽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창 현지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대회 준비에 충실히 반영해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회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배석기관으로 참석한 강원

도와 평창군, 강릉시 및 정선군 등 자치단체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건의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시설 총사업비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4차까지 기재부 승인이 완료가 되었으며 앞으로 빙상경기장에 대한 영구 존치 또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경기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증액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비 217억 원 중 국비 161억 원이 1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4쪽, 문화올림픽 추진 국비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발굴, 제작, 보급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강원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을 17년도 예산에 반영 강원도로 직접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대회 기반 조성을 위해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시가지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186억 원 중 국비 93억 원이 1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노재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승담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부군수 어승담 평창군 부군수 어승담입니다.

평창군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창조올림픽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하여 올림픽특구 지역과 경기장까지의 이동 구간을 정비하여 품격 있는 창조올림픽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총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올림픽특구 내 게이트웨이지구와 진부 도시재생지구 그리고 경기장 이동 구간으로 관람객들이 평창올림픽을 특별한 대회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거점지역 특화조성, 수변 조망공간 조성과 시가지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평창역사와 면온IC에서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구간 중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경관 정비 핵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관 정비는 물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 평창을 방문하는 손님 맞이를 위해 독특하고 특색 있는 올림픽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250억 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장 진입도로 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설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 기간 중 늘어나는 제설 수요와 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신속하고 적기에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국비 21억 원 지원을 건의드리오니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기금과 지방비 등 총 295억 원으로 명상시설과 건강체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림픽 시 독일·미국 선수단의 명상체험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2016년 국비 보조 결정 시 문체부에서 2015년까지 언급이 없었던 자부담 115억 원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염동열 위원님께서

지난 8월 12일 문체부·도·월정사 관계자 등이 함께 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회의에서 2016년 자부담 33억 원 전액을 지방비로 결정하였고 2017년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결정대로 하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 신뢰도 제고와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명상체험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평창군의 올림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올림픽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어승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김철래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강릉시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경기장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강릉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총사업 규모는 6개 사업에 144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진입도로 또 주요 이동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에 4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도시관문 진출입로 개선사업의 불량 건축물과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 8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을 오른쪽에 있는 현행 상태에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다국어로 표시하는 것으로 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올림픽도시 가로조명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200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2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도시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녹화 및 띠녹지 조성을 위해서 2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대관령을 넘어가면 강릉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톨게이트를 한옥풍으로 관문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도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도시의 도시환경 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최도시 지역인 강릉·평창·정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철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윤성보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정선군 부군수 윤성보입니다.

저희 군 관할 올림픽 경관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정선군 첫 진입로를 올림픽 경관도로로 조성하고자 아리랑 문화거리 및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올림픽 방문객의 만족 극대화 및 성공적 문화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정선읍 북실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억 원 중에 사업량은 올림픽 경관도로 개설 1㎞, 트래킹 코스 800m, 조형물·조명 등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7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경관도시 조성으로 올림픽 개최도시 위상 제고 및 유산 창출을 위해, 올림픽 경관도로 및 트래킹 코스 정비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지원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지난 5월 19일 아리랑센터와 아리랑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정선군의 핵심 가치인 아리랑이 올림픽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앞서 4쪽에서 도(道)에서 문화올림픽 관련 예산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선아리랑이 문화올림픽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석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재정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체육정책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김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최초로 평창 현장에서 조직위, 강원도, 개최도시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 마지막 순서로 문체부에서 종합적인 대회 재정현황과 2017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평창올림픽대회 재정입니다.

올림픽 재정은 크게 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선수촌 등 대회 필수시설, 조직위 운영 재정, 대회 교통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현재 전체 대회 재정은 13조 7000억 원 상당으로 교통망을 제외한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 7000억 원 수준입니다.

부담 주체 측면에서는 전체 13조 7000억 원 중 강원도 및 개최 시군에서 전체 재정의 약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대회시설 중 교통망은 국토부에서, 경기장 등 필수시설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경기장 및 진입도로의 경우 올해 말부터 1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이 될 예정이며 개·폐회식장은 17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대회시설 관련 예산 투입의 마지막 해입니다.

신설 빙상장 2개소 영구 존치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보강 등 신규 소요에 대해서도 적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 현재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17년 국비 예산은 올해 경기장 신규 소요를 포함한 요구사업비 대부분을 반영해서 대회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패럴림픽 적립금은 대회 유치 시 비드(bid) 파일에 명시된 공약사항으로 총 국고 173억이 지원되며 17년에는 연차별 스케줄에 따라 34억 원을 조직위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포함한 기타 사업은 조직위 차원에서 체육기금 반영을 요청한 건입니다. 17년 요구액 386억 수준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17년도 203억 규모로 올림픽 지원사업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조직위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조직위 자구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올림픽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기존 부처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쪽, 올림픽 부대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올림픽 부대사업은 대회 개최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올림픽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강원도·조직위·민간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문화·관광 분야 인프라 개선, 콘텐츠 개발·공급을 위해 17년도에는 597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화관광올림픽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조직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15년부터 구성해서 사업 선별,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도 주관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 중인 타 부처 올림픽 부대사업 예산은 171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은 최선을 다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평창올림픽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재원 체육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받을 내용들은 다 청취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질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분당 5분씩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더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우리 강원도 또 시군 모두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강원도하고 평창·정선군에서 또 강릉시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올해 기재부와 협의를 한창 하고 있는 이 항목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 협의사항 중에서도 강원도하고 3개 시군이 건의한 사업들이 아예 빠져 있는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일부 아마 지자체 요구사항은 빠져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무튼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공을 하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 전체가 관광·문화와 관련돼 있는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민 또 강원도민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최소한도 성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나 재정은 반드시 확보가 돼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산 투입하고 재정 투입하는 것 올해 관철시키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위원회도 문체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당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고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고 그리고 부처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 평창동계특위 위원들도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동계특위 위원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동계특위 때 제가 이희범 위원장님께 재정 스폰서십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특히 규모 있는 기업체나 또 정부 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계올림픽 스폰서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니까 기업체에서 물품 후원을 했는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상당히 부과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면서 시정될 것은 시정되거나 보완될 것은 보완되거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뭔지 우리 이희범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예산 부분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가 기재부에 해서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창군에서 주재하고 있는 창조올림픽 거리 조성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바라고요.

기업의 물품 후원 시의 세금 부과 부분은 사실 기재부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상업적 거래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나왔고요. 다만 현금으로 후원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마는 상업적 거래는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세금 부분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웬만한 것이 전부 해결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올림픽 관련 특별법에 이번에 세 가지 안건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거면 현재는 편재된 현안은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상으로는 이철규 위원님이신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준비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더우신데 배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서요.

저희 의원실에서 조직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요. 평창조직위원회 최고의결기구가 총회지요? 그런데 올림픽 지원법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두고 사실상 집행위원회가 상설 최고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 들어서 열린 25차·26차·27차 집행위원회 참석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집행위원회가 상설 최고의결기구로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선출직 집행위원을 포함해서 집행위원이 스물세 분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대리하거나 위임한 경우를 빼고 실제 참석한 분들이 여덟 분, 아홉 분 정도인데요. 거기 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 세 분만 합해도 다섯 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에서 이분들 제외하고 열여덟 분 중에서 매번 세 분, 네 분밖에 안 오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참석이 이렇게 저조하고 대리참석 혹은 위임을 해도 최고의결기구로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별문제는 없는 건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집행위원회가 금년 들어서도 서너 차례 열렸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임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참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교체가 된 게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의 위원회별로 참석현황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집행위원회의 참석을 앞으로는 독려를 해서 가급적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최명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공식기록으로 불참했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한 분 정도밖에 없지만 실제로 대리참석을 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집행위원이 나오는 경우가 여덟 분, 아홉 분 정도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들의 동력을 떨어트릴까 봐 걱정이 들어서, 집행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실제 집행위원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네 가지 올림픽의 성격으로 문화올림픽·환경올림픽·평화올림픽·경제올림픽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서 문화올림픽을 제일 앞세우고 있는 것은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 문화올림픽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문화올림픽 성격을 대회 재정 이내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자료에 나오는 것 같은 대회 재정 이외 추진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최명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문화올림픽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 콘셉트는 한국의 전통문화, 또 최근의 케이팝이라든가 한류문화에다가 강원도의 고유문화를 합친 문화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선보이자는 이런 콘셉트이고요. 그것은 개막식에도 그런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고 성화 봉송에도 그런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고, 라이브 사이트를 곳곳에 설치합니다. 거기에도 그런 콘셉트로 설치하고 있고요.

또 메달프라자라고 해서 이따가 방문하시겠습니다마는 올림픽프라자 안에 메달프라자를 만들어서, 또 선수촌과 기자촌에도 대회기간 중, 50일 동안 매일 '문화가 있는 올림픽' 이런 콘셉트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전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드리겠어요.

아까 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로 리우에서 우리 VR(Virtual Reality) 체험관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12개소에 VR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데 치우치면 실제 일반대중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이라든지 광화문 KT스퀘어 같은 곳과 같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선군에서 얘기한 이번 평창올림픽을 하는 과정에서 아리랑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최명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540일 남았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야말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부족한 것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국회에 돌아가면 각 해당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도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림픽을 개최한다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체육진흥이라는 본질적 목표 외에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 민간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우리 VR 체험관 등등을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앞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먹거리로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ICT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 개최와 함께 우리 국가가 전략적으로 또 조직위원회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우에서 홍보관에 있는 VR 체험관 같은 것은 사전홍보 성격이고,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진행할 때 세계 이목이 여기에 집중됐을 때 이 지역과 우리 올림픽 중계와 홍보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인터넷, 또 요즘 포켓몬GO로 소위 너무나 유명해진 AR·VR 등등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여기에 적용시킬 건지, 이런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우리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아까 최명길 위원님 지적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실 근대올림픽이 종합이벤트로서 IT 경연장처럼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2018평창올림픽 다음에 2020도쿄올림픽이 있고 2022북경올림픽, 세 나라가 자존심을 걸고 IT 경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가지 목표 속에서 ICT 올림픽이라고 걸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4D(Dimension)이라든가 그다음에 Io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모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IT의 최첨단을 보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개념 속에서 어느 장벽도 없는 이런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개발은 현재 정부가, 특히 미래창조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또 마스터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말씀 좋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제 느낌은 아직 추상적인 그림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를 소관으로 하는 미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쪽에서 내년 사업으로나 뭐 이렇게 몇 년간 중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특히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혜택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스폰서십 때문에 고민하시고 더 늘리려고 애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시키는 구체적인 안들을 요구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평창올림픽이 첨단 ICT의 경연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는 큰 목표고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들여와 가지고 540일 동안에 뭘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과 또 우리 스폰서를 좀 더 확보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을 누군가 미래부 쪽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고하는 데 그건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거기에서 돈이 나올 수 있고 지원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조직위에서도 또 준비하는 우리 주최 측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평창올림픽이 그야말로 성공적인 ICT 올림픽이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재정계획 보면 4차 재정계획에 약 4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건 그렇다 치고 주요 지침 중에 혹시 줄여야 될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자체 노력도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시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 이 부분들은 주요 지출 중에 주로 어떤 건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주로 관중석입니다. 경기장은 대개 영구보존해서 사후적으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관중석 부분은 경기 종목에 따라서 관중이 어떤 경우는 1만 명이 오고 어떤 경우는 2만 명이 오고 3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예상 숫자에 맞춰서 관중석은 임시시설로 해 가지고 뜯어내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또 통신장비, 전기장비 이런 시설들이 임시시설로 돼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보통 임시시설은 철골 구조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요즘 구조물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대개 임시시설은 요즘 그런 기술이 아주 발달돼 있어서 철골 쪽에서도 일부는 관람석을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또 박스를 쓴다든가, 철골 구조를 임시시설로 연결해서 한

다든가, 또 일부는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기본적으로 영구시설물들에 대한 논란도 그 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후 유지·보수·관리 등등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이미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임시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아직 과문합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기사도 보고 내용도 들어보면 그야말로 설치와 이동이 훨씬 더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구조물들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줄이고자 노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를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고용진 위원 그런 노력과 아울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차후에 한번 또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이하 조직위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돼서 대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고사항에 빠져 있는데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올림픽경기장 외에 많은 숙소, 호텔을 비롯해서 주차장 또 자원봉사자 또 경비·경호인력들 숙소 이런 것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수단 숙소는 강릉에 지금 짓고 있고요, LH공사에서 짓고 있고요. 선수단 숙소는 강릉하고……

○권성동 위원 선수촌은 그렇다 치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십만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숙소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필수시설은 이미 마련해 가지고 IOC에 보고해서 승인을 해 가지고 각 클라이언트별로 가격 협상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위원 좋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시시설도 만들고 또 기존에 대학기숙사를 쓰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치르는데 경기 실적 이것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 국위를 고양하고 우리 이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어떠한 내용으로 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소치올림픽 때 폐회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소치동계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무궁무진한 문화·예술 방면의 자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볼쇼이발레단, 마린스키발레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이런 문학가들 또 가가린 같은 우주비행사. 그러니까 세계 인류사에 공헌하고 기여했던 사람들만을 갖고 해도 콘텐츠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정말 첨단 IT기술 동원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올림픽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폐회식은 사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폐회식에 대해서는 현재 예술감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패럴림픽은 또 별도로 예술감독들이 구성되어 있고 기획사를 현재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

획사를 선정하고 감독단이 지금 매일 회의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통문화유산 또 K컬처 그다음에 강원도의 우리 문화, 정서, 예를 들면 정선아리랑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포함하는 올림픽 개회식이 되도록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짜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개·폐회식장을 대관령변에서 합니다. 대다수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은 다 실내에서 해요, 다른 나라들 보면.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날씨에 따라서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난방도 문제예요. 만약 기온이 영하 한 5도 정도 되면 두툼한 잠바 입고 견딜 수가 있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든가 폭설이 내린다든가…… 그런데 개·폐회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무용을 포함한 퍼포먼스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홑껍데기 옷 하나 입고 춤을 추는데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날씨 변동에 대해서, 악천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난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2시간 이상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도 추우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저희들도 제일 관심사항이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난 30년간 평창지역의 평균기온이, 개회식이 열리는 2월 9일의 평균기온이 영하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성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혹한이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기후 악화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지금은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 때가 아니고 확정된 대책을 갖고 밀고 나갈 때입니다. 1년 얼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조직위에서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방침을 정하고 정해진 방침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있었고, 오늘 감회가 깊게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폐회식과 개회식을 살펴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획한 것 아니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연예인과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다 끝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평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88올림픽 열렸을 때 기억을 지금도 보면 호돌이와 태극기 문양을 그려 가지고 사람이 퍼포먼스를 했을 때, 매스게임 했을 때 감동스럽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 나는 굴렁쇠 어린이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런 기획서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방송에 나가서 다른 출연을 해서도 안 되고 죽기 살기로 머리를 짜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획을 맡은 담당자들이 다른 방송의 연예인으로 출연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혜를 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시 담당자 부시장님? 거기 서서 그냥 대답하십시오.

○위원장 황영철 발언대에 서셔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강릉시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김규환 위원 간판 보면 개선 전과 개선 후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지요. 거기에는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있어요. 그런데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그것은 국토부의 기준에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한 겁니다.

○김규환 위원 아니, 기준보다도 뭐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같은 규격의 글씨가, 이게 글씨를 많이 넣다 보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디자인을 달리 할 수는 없습니까?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글씨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김규환 위원 아니,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눈 나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다 볼 수 있게 해야지 그거 보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는 달리는데. 그렇지요?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런 것 해서 꼭 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멋있는 디자인 해서 '강릉'하면……

지금 마산 보면 거기에 로봇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주영 의원님 계시는 자리인데 가로등을 다 로봇으로 만든대요, 태권브이 이런 것으로.

우리도 '강릉'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강릉' 그러면 순두부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강릉'하면 경포대도 있고……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디자인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좀 넉넉하게 잡아서 디자인도 잘 하고 멋있게 하시지 빡빡하게 잡아 가지고……

돈 모자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요?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지금 저희들은 경기장하고 주요 도로 필요한 데만 우선 하고……

○김규환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는데……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강릉시면 다 바꿔야지 거기만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 좀 생각하시고 기획할 때……

제가 지금까지 죽 보면서 답답했는데 저는 국가품질명장입니다. PDCA 관리 사이클을 정확하게 돌린 사람이고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이 어떻게 잡히면 한 개 한 개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 장소에 몇 개가 어떻게 들어가면서 금액이 얼마이다, 페인트 값이 얼마이고 쓰는 사람이 얼마이고 인건비 얼마인데 죽 얼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돈 내놔라 그러면 안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렇게 좀 잡아 주십시오.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예, 준비해 주십시오.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 정선군.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정선부군수 윤성보입니다.

○김규환 위원 군수님이세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부군수입니다.

○김규환 위원 부군수님이세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예.

○김규환 위원 다 부군수님만 나왔네. 평창도 부군수님, 강릉시도 부시장님, 정선도……

아, 오늘 다 부군수만 모이는 자리군요.

정선군에서 가장 자랑할 것 한 개 얘기해 보세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저희들은 일단은 핵심 가치로 아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아리랑을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일단은 홍보를……

○김규환 위원 홍보비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김규환 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돈이 있어요, 거기? 국비 지원받아야지.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국비도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노력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홍보할 것이다. '정선아리랑' 하면 세계적인 아리랑이고, 아리랑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제가. 아리랑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아리랑에 아리랑 먹을거리, 아리랑 볼거리, 아리랑 체험할 것 이런 것을 죽 짜세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짜 가지고 기재부에 갈 때 여기 염동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권성동 위원님, 황영철 위원장님 다 같이 가자고 떼쓰세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예,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래서 가서 '이거 봐라. 이거 해야 되겠다' 얘기하면 '아리랑이 뭐냐?' 그러면 '너는 아리랑도 모르냐?' 노래도 한 곡 부르시고, 아리랑 잘 부르는 것 있잖아요. 정선아리랑하고, 안 되면 저도 한 곡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알려야지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꼭 좀 짜 주세요. 저 꼭 같이 갈게요.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규환 위원 평창군 부군수님.

○위원장 황영철 김규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규환 위원 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주세요.

○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일단 한 번씩 다 질의를 드리고 또 기회를 드릴게요.

○김규환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는 줄 알고.

○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철규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죄송합니다.

지금 5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적절하게 끝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다가 끝내려고 하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희범 위원장님 또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인접 그 다음에 행사장 관할지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다들 참석을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공감대를 이뤄 가지고 54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번 회의 때 그때는 4차 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됐었나 보지요, 먼저번 회의할 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때 막 수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3페이지 보니까 약 4239억인가 부족한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이철규 위원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내에 있는 기업에도 협찬을 요구해 놓고 있고 또 국가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올림픽 행사에 지원하는 이 자금의 분배 비율은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변적인 것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톱 스폰서를 해서 12개 스폰서가 IOC에 돈을 내고 그중에서 저희가 분배를 받습니다마는 그 분배 비율은 사실 IOC가 정합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화 돼 있는 것이 아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규정화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IOC하고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협상단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재정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협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광고효과도 거두고 있는데 그 수익이 IOC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고 비용을 지출하는 조직위원회 또는 우리 개최도시 쪽으로 배정이 적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전진배치해 가지고 IOC와 배분율을 협상할 때 총력을 기울여서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가 더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도시, 예를 들면 소치라든가 전에 했던 도시라든가 이후에 개최할

다른 도시 못지않게 우리가 배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 10여 개 공기업에다가 협찬 요청을 하셨는데 반응이 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대상이 된 공기업은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나눠 가지고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는데 일부는 협조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여러 가지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굉장히 장애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설득을 해 가지고, 기업도 여기에 협찬했을 때 그만큼 비용으로 계상된다면 경영수지가 나빠져서 손실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에서 평가할 때부터라도 협조로 인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기재부 쪽에 알아보다 보니까 대형 구급차 4대를 아마 요청했는가 본데 이것이 기재부 예산심사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저희가 직접 요청한 것도 있고 부처를 통해서 부처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각 부처가 기재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 3차 심의까지 했는데 대형, 그러니까 서구의 스포츠 선수들이 키가 크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이철규 위원 기존에 있는 191㎝짜리 구급베드가 설치된 구급차로는 장신의 외국 서양 선수들을 후송하거나 응급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 예산 3차 심의 과정에서까지 이것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기능에서는 부처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이것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준비 없이, 만약에 거구의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후송을 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응급차량이 없어서, 구급차량이 없어서 못 한다면 국가적 망신이고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그냥 다치지 않고 잘 성공적으로 무사히 지나가기만 우리가 빌기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치 해당 기능에서는 부처와 협의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설득시켜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이철규 위원 추가로 다시 더 질문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하셨고요, 간사님들께서 질의를 못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간사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위원장님 새로 되시면서 지난번보다 훨씬 활발하게 조직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이 들려서 다소 안심이 되고요, 그동안 더운데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구급차 그것이 반영이 됐다는 말에 대해서……

강원도 혹시 나오셨나요?

강원도 소방본부에 대형 구급차 4대 그것 아마 확인해 보시면……

○위원장 황영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철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바로 오늘 기재부에서 대형 구급차 7대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조금 전 회의 중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예산 나온 것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중요한 부분이 국민안전처에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됐나 보지요?

위원장님, 다목적 구조차량 같은 부분은 소관 부처 요구액에서 빠졌나 봐요,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대해서도, 또 저희 차원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대해서도 '올림픽'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가급적 깎지 말고 전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사무총장이 예산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조목조목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급차 문제는 저희가 사실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사무총장하고 예산실장하고는 핫라인 돼서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즉시 구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노재수 본부장님, 문화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하는 것을 지금 강원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기본적으로 문화올림픽은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직위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 조정은 문체부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내용을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국·예술국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안에도 문화홍보팀들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를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내용이 또 일관돼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정책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님 또 노재수 본부장님 세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기획도 하실 수 있고 내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도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예술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들하고 사실은 또 전문가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된 문화 콘텐츠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개·폐회식 같은 경우 기획사나 기획담당자, 총감독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일관된 결정을 맡기는 식으로 가겠지만 문화올림픽에 관련된 각종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총감독 격인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영입을 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람의, 정말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일관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수립하셔서 추가로라도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신 담당 공무원님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래도 프로들하고 프로가 아닌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진 차원에서 보시고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한 2주인가요, 문화올림픽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제 나름 느낀 것이고 저희들 올림픽특위에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문체부 2차관 주관으로 문화 태스크포스팀, 콘텐츠 ICT팀, 관광·IT 태스크포스팀, 홍보 태스크포스팀 등등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리우올림픽이 끝나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 조직위 안에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차원에서 문화올림픽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송기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이신 염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헌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들이 현장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준비 점검을 위한 특위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제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보고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민간운동을 펼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회스럽고 25년 전의 청년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남다른 소회를 느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올림픽특별위원회라든가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도 했고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올림픽에 대한 실질적인 총 컨트롤 타워가 없다, 결국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연합군으로 되어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칸막이가 실질적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로 구성되다 보니까 윈윈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각계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조직위가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희범 위원장님 출범 이후로 각론별로 또 총체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점검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3차 동계특위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에 의미를 두 가지로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직위·강원도·문체부 또 평창·정선 그리고 강릉 이 자자체가 실질적으로 따로국밥이었던 것이 오늘 기회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3~4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폐해가,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림픽 추진의 역할이 부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여야 위원들이 우리 조직위원회의 어려운 점이나 강원도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올림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공 올림픽에 대한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겠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당장은 사실 4차 재정계획상에 세출안을 확보해 놓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균형재정을 위한 세입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제일 당면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6000억 정도 모자라다는 것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세입하고 따지면 한 4000억 정도……

○염동열 위원 4000억 정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염동열 위원 제가 조직위의 여러 가지 역할 또 조직위원장님이 두 분 거쳐 가시고 세 번째 오셨는데 그동안에 2조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드 파일의 관리운영비가 IOC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돼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서 부족하다, 적자 올림픽으로 갈 수 있다

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것을 이희범 위원장님이 몇 달 전에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런 적자 올림픽이 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그냥 가보자 하는 용기보다는 드러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저는 용기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4000억을 그동안 공공기관의 스폰서,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한 2000억 정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시고, 토토복권을 통해서 한 1500억 정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무총장하고 제가 나눠서 대상 공공기관장을 다 만났습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다 만났습니다마는 공공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직까지 확답을 해 준 기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 그리고 문경세계군인대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한 30~50%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는 지금 한 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지요?

그냥 IOC에서 스폰서라든가 지원하는 걸로 해라 하는 것이 저희 정부 방침 아니겠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실질적으로 13조, 11조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마는 올림픽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65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돈이 1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관리·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700명의 우리 조직위원들이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꽃을 불태울 때 플러스 1이 안 돼서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여기 체육실장 나와 계시지요, 김재원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도저히 정부에서 이 관리·운영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원칙적으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IOC나 FIFA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를 드신 다른 체육대회는 그런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재정당국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확고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금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염동열 위원 지금 리우올림픽 보면 실질적으로 절약 올림픽입니다마는 한두 개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체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저는 리우올림픽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세계의 눈이 집중하는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의 문제 또 관리의 문제, 자원봉사의 문제를 세계 속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저는 올림픽을 잘못 유치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열에 하나를 보태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를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반신불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계특위가 이곳에 내려와서 현장의 목소리 중에 지금 우리 조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장께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올림픽으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막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금까지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바꾸셔서,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브랜드 상승, 국가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 올림픽 개최지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 들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예산 절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

도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마는, 그러나 굳이 마인드의 변화가 되지 않고 이걸 뺀다고 한다면 저는 올림픽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걸맞은, 선진국에 걸맞은 그런 올림픽을 준비해야 된다.

소치올림픽이 54조 써서 손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러시아가 세계적인 대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대열의 그 고개를 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동계올림픽은 굉장한 터닝 포인트다, 지렛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메르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세월호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한 번에 떨어트려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는 400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 지적하는 올림픽 준비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너무 길어져서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차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올림픽이 성공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마는 특히 모든 국민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김기선 위원 여기에서 특히 올림픽 개최지이고, 평창을 비롯한 강릉·정선이나 횡성은 물론이고 원주 등 관련 지역 강원도가,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도약의 전기로 삼겠다고 하는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 불충분하거나 이러면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우리 강원도에서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모집 마감이 언제입니까? 9월 달까지입니까?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최대 9월 말까지입니다.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부터 관련된 시군 지자체에다가, 이건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보고, 다른 지역보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강원도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나설 수 있도록 도가 시군별로 전부 체크를 하십시오. 자원봉사 지원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중간중간 점검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이 적극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이것 시장·군수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올림픽 붐 조성하고도 직결되는 거다, 강원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나 다른 지역보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산 달라고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미터가 이번 자원봉사자의…… 특히 이 평창을 비롯한 관계지역, 강원도 전체가 다 달라붙어야 된다, 이것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얘기하고 재정 얘기하고, 이것 염치없는 짓입니다.

강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신청도 받지만 단체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지금 각 시군의 사회단체장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중간점검을 했더니 강원도 참여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수혜지역,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강원도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자원봉사자 이것 챙기세요.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돈 얘기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3분 이내로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선하고 강릉하고 얘기했으니까, 평창은 제가 유인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조성사업 지원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게이트 지구에 들어가는 입구 문제 그런 문제들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한 25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동네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안전문제, 특히 겨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올림픽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황영철 위원장님하고 다 성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결의를 한번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위대한 독립군과 애국지사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격을 높이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황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 분들,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결의를 저는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함께 좀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정말 일심단결해서 최고의 올림픽을 하겠다고, 안전사고 없이 88올림픽보다도 전 세계 최고의 명품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한번 하겠다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리우에 가서, 전반부에 가서 여러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외신들이 한국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88올림픽부터 아시안게임, 또 2010년 세계 G20 정상회의, 월드컵 등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안전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규환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림픽 조성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예산 확보가 미진합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산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면질의로 다 하겠습니다.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평창군의 배후 도시나 배후 길, 들어가는 입구 조성사업 이런 것들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독립군이고 애국지사입니다.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올림픽, 평창올림픽 파이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창과 강릉 또 정선만의 올림픽이 아니고요 강원도 전체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에서조차도 인접지역은 물론이고 조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동계올림픽 자체를 그들만의 리그, 또 그들만 좋아지지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또 일부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지방재정이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지역이 소외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라든가 또는 올림픽의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3개 시군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이며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을 여타

지역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위가 물론 나서 주셔야겠지만 강원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횡성이며, 또 강릉은 물론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강릉까지 고속전철이 어떻게 놓이겠습니까? 속초가 30년 전 대통령 후보가 전철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원주-강릉 간 고속전철이 단기간 내에 결정되고 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전체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SOC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강릉 부시장님 나오셨지요?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강릉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이철규 위원 부시장님, 원강선을 건설하면서 남강릉에서 안인 쪽으로 삼각선이라고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철길을 부설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가 이미 되어 있지요?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계약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앞에서 보니까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남의 잔치로,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릉으로 올라오는 철길을 만드는데 어떤 지역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을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가면서 도시 자체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삼척의 경우. 그럼에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착공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이 철길이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내가 수혜 받지 않는데 다른 지역주민을 위해서 부설되는 철길이 우리 지역을 가로질러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적정한 보상, 금전적 보상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혜를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국제대회 때 무전기용 주파수 이거 원래 다 유료로 다른 올림픽에서는 사용했던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저희가 비드 파일 제시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다른 대회 때는 어땠던 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다른 대회도 대개 면제를 해 줬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방통위원장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처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한 모양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요. 다만 그쪽 시행령을 고치기가 어려우니 저희 쪽 특별법을 손대 달라 이런 요구……

○고용진 위원 그쪽 시행령이라는 게 어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방통법 시행령을 고치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고치기보다는 저희 특별법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다 내용 쓰셨는데 무

료 사용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특례 규정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 금액도 비용 절감하는 부분인데, 1억 9000 정도인데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할 만큼 무슨 문제가 있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미래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법률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특별법에서 특례를 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그쪽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진 위원 전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 쓰신 것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가지고 무료 사용 보장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전파법의 특례를 저희 특별법에 규정해 달라……

○고용진 위원 특별법에다 규정을 해서 특별법 우선으로 해 가지고 가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고용진 위원 이거 추진하는 데 어려운 게 없으신 것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없습니다.

○고용진 위원 방통위나 미래부하고 논의하시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그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하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위원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동계올림픽하고 하계올림픽 차이 중의 하나가 동계스포츠라는 게 사실 서민적인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자체도 이제는 선진국 스포츠가 대부분인 그런 스포츠 올림픽이거든요.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가 선진화됐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올림픽이나, 아까 잠깐 누가 말씀하셨는데 톨게이트를 한옥으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생각하실 때 이제는 과거보다는 그것이 유적으로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문화 자체 콘텐츠나 아니면 시설 자체도 거기에 맞게 해야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남게 되는 문화유산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동계스포츠가 상당히 선진화된 국가의 스포츠 올림픽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문화올림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쉬운 얘기로 저도 취미로 색소폰도 불고 노래도 부르지만 제가 부르는 것이 케니지가 부르는 것하고 상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할 때 저 같은 아마추어가 부는 색소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케니지가 색소폰을 부는 그런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의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4000 부족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야 위원이 의견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사후관리와 지역경쟁력, 올림픽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 그리

고 강원도의 가치 발견 그리고 올림픽 개최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도시로의 발돋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후관리, 경기장·시설 사후관리는, 13개소의 경기장이 있습니다마는 11개 정도는 이미 대학교라든가 강원개발공사 또 평창군, 체육대학교가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기장에 대한 시설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철거하는 경기장과 시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도 거쳤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수없이 또 강원도 조직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하고 토론해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10일 전에 4자가 모여서 한번 의논을 했고요.

과거에는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13조라고 칩시다. 이런 13조의 대형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 이벤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더 하지 못해서 또 세밀하게 우리가 연결하고 융복합하지 못해서 올림픽 전체가 빛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목적이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치를 높이고 산업기술을 세계 속에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3개 중에서 11개가 지금 되어 있고, 개·폐회식장하고 올림픽플라자가 문제가 돼서 제가 13일 토요일 날 죽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조감도가 이렇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지요, 개·폐회식장이? 이 개·폐회식장은 세계 속에 영원히 기억될 개·폐회식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3만 5000석에서 3만 석 줄이자는 것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올림픽광장 이게 24만㎡, 거의 8만 평 되는데 이것을 올림픽 이후에는 전부 다 없애고 달랑 5000석과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남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메인본부석이고 양쪽 날개가 있고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즉 이런 형태로 되지요.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것만 달랑 남겨놓고 이것을 올림픽 레거시(legacy)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외에 철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운영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가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쪽 날개 부분은, 2층 내지 3층 건물이 지금 들어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출연진이 쉴 수 있는 자리, 대기소 이런 부분인데 저는 굳이 왜 이것을 다 허는데 또 60억을 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콘크리트 치고 완공하는 데 있어서 몇백억이 드는데 다 들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강원도 평창군 그리고 조직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과 함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수차례 기업 대표들 만났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 내는 데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올림픽플라자, 메달플라자 수많은 메달 수혜자들이 받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것을 없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돈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일부 기업가들 그리고 강원도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마인드를 조금 바꾸세요.

그리고 사후관리팀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기업 유치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이 개·폐회식장이 하나의 랜드마크로써 외국 관광객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조직위원장의 마인드를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회장과 개·폐회식장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설들을 사용하게 된다 하는 주장을 여러 번 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만약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금·토·일 3일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2500만 명 그리고 중국 10억 명 그리고 2시간 거리의

아시아 인구 10억 명 정도, 적어도 20억 명 정도가 여기에 콘텐츠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큰돈 들이자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세트의 개념이고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개·폐회식장에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산술적 가치를 저는 봤기 때문에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올림픽 개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의 사후관리, 역사에 남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개최도시가 올림픽 이후에도 세계 관광의 명소로서 역사에 영원히 남는 이런 레거시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취임할 당시에 네 가지 약속 속에 레거시를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플라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는 강원도와 또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비용효과를 따져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 문화가 관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인 머릿속에 우리의 문화를 인식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관광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강릉의 바다 또 가지고 있는 계곡, 강원도의 자연의 가치를 얼마든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융합해 내고 복합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벨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충분한 보물 같은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문체부하고 강원도가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에 관한 모든 것은 조직위원장님이 컨트롤하세요. 물론 수직적인 조직에 있어서의 들을 얘기와 권고받을 얘기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 그리고 음식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자원봉사 전체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조직위원장이 해 주십시오.

물론 과거의 조직위원장님은 업무 구분 때문에 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위원장님께서는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활용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TF팀을 만들어서, 물론 이것은 문체부에 특구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실질적으로 지자체하고 강원도하고 조직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팀을 좀 만들어 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환경·경제·평화 그리고 우리 이희범 위원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ICT까지 해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 액션 플랜을 지금 누가 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아시는 것 반 또 대략적인 감각에 의해서 반 말씀하시는 것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다섯 가지에 대한 액션 플랜 만들어서 적어도 10일 이내에 우리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우올림픽에 오늘 저녁 때 또 가실 것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염동열 위원 가시게 되면 갔다 온 이후로 환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 자원봉사, 운영 또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우리 김재원 실장님, 문화관광부에서 리우 갔습니까? 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차관님이 갔습니다.

○염동열 위원 보고서 작성하셔 가지고 리우올림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하셨는데 저는 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으로 어려운 것들을 한 군데 쏟아붓고 그것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처음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들 동계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송기헌 간사님 그리고 김관영 간사님과 또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적어도 위원장님과 함께 정부에 권유하고 또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희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염동열 위원님께서는 지역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들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길게 하셔도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특위의 기본적인 목적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것이 저희 특위의 기본 목적입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이 특위의 위원으로서 지원하셨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혹시 조직위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흡한 것은 없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성공 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몇 가지 내용들은 조직위원회와 또 각 자치단체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 깊게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은,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들으면 범정부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범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집행위원회의 아주 활성화된 회의 개최와 관심 이것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ICT 접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도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폐회식장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 대관령면에 와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기후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또 고개를 내려가면 날씨가 따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개·폐회식이 기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매우 유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강원도의 노력 또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한 지적 또한 따끔하게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울러 가장 중요한 행사인 개·폐회식 행사와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써야 될 만큼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기획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굴지의 기획사들 입장을 들어 보니까 개·폐회식 비용 문제 때문에 과연 지금 설정된 비용만으로 가장 필요한 행사를 전 세계에 잘 보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는 부분은 아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아껴야겠다, 여비 아끼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사실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이곳 강릉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질 얼마 안 되는 비용 그것 아껴서 전체 비용을 아끼겠다? 저는 이런 발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비용 줘야 됩니다. 여비 2만 원에서 1만 원을 아껴서 1만 원씩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집착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 뛰어서 더 많은 스폰서를 얻어 내든지 아니면 더 뛰어서

설득해서 정부의 예산을 얻어 내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원래 4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조직위와 기념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념촬영 할 때 조직위 측에서 협조 요청해 주신 게……

(넥타이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조직위에서 만든 넥타이라고 합니다. 이 넥타이를 같이 착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회의 끝나면 넥타이를 같이 착용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마친 후에 조직위가 준비한 시설들을 시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까지 일정들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조직위 관계자, 각 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취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와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실 전문위원님, 애써 주셨고요. 멀리까지 와 주신 우리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고용진 권성동 김규환 김기선
송기헌 염동열 이철규 최명길
황영철

○청가 위원(3인)

이동섭 이헌승 이찬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건설추진단장	이규운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평창군부군수	어승담
정선군부군수	윤성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	여형구
운영사무차장	백성일
기획총무국장	김현기
재정국장	지규택
시설국장	손창환